

“강진청자, 장흥창 보관 뒤 개경으로”

(영암)

지난 2007년 5월 충남 태안에서 발견된 강진 고려청자는 영암의 장흥창으로 옮겨져 보관됐다. 쌀과 함께 조운선에 실려 2~3월에 해로를 통해 개경으로 운송도중 침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럽 순회전을 통해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한껏 뽐낸 강진군이 9일 서울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청자보물선 백길 재현기법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윤용이 명지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고려청자의 제작과 소비, 항로’를 주제로 한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강진 윤용이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해로를 운반돼 개경의 관청, 사찰은 물론 중국·일본 등지에도 보내져 널리

내일 서울서 ‘청자 보물선 백길 재현 심포지엄’

윤용이 교수 ‘강진청자 소비·항로’ 자료 배포

사용됐음을 소비지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자보물선의 백길재현은 소비지의 유통경로와 도자의 관련 등을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청자산업과 관련된 고려의 대외 항로(윤명철 동국대 교수) ▲충남 태안군 대십 수증발굴조사의 성과(문환식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수증발굴과장) ▲태안 청자 운반선 출토 고려목간의 현황과 내용(최연식 목포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또 2부에서는 ▲고려청자의 위상(기라후미호 일본 규슈대학 교수) ▲중국출토 고려청자(마정명 중국 절강성 문물감정심사부장) ▲강진청자의 생산과 유통(한성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강진과 지역적 특성의 상이점과 상사점(구유희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장)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고려시대 청자를 운반했던 백길 재현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학술포럼을

마련했다”며 “2007년도 태안 해저에서 발견된 청자보물선의 발굴성과와 더불어 고려청자의 소비, 항로, 위상 등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천년의 신비를 실고 탐지에서 개경까지 운반했던 고려청자 백길을 재현하기 위해 총사출비 3억원을 들여 길이 19m, 폭 5.8m, 깊이 2.2m 규모의 ‘청자보물선 온누리호’를 제작중에 있다.

‘청자보물선 온누리호’는 제 37회 강진청자축제(8월8일~16일) 시기에 맞춰 8월3일 강진 대구면 미산마을을 출발해 강화도 외포항까지 약 7일간의 일정으로 1천 100km를 운항,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할머니들의 부채춤 솜씨

지역 4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 2회 목포 노인건강축제’에 참가한 노인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목포지역 65세 이상 노인

과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참여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담양 금성면 농로포장 ‘특혜 의혹’

수의계약 20건중 16건 특정업체와 계약 논란

담양군 금성면이 최근 3년여 동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공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성면에 따르면 수의계약 발주대상 공사인 농로포장 관공공사는 2007년 9건, 2008년 7건, 올해 들어 4건 등 총 20건에 관공사비를 댈 1억 7천300만원에 달한다.

못한 다른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담양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물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일삼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70여 개에 달하는 업체들에게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성면 관계자는 뚜렷한 해명을 못한 채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영준기자 cjb17@

“친환경 무염산 김 양식 동참” 강진 김 양식 어민들 결의대회

전남도내에서 친환경 무염(無鹽) 김 양식이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 김양식 어업인들은 지난 5일 마량면 해상에서 친환경 무염 김 생산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양식 어업인들은 결의문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산(酸)처리 양식법 대신 무염 김양식으로 연안 생태계 보호와 고품질 친환경 김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강진 김은 패래, 잡데 등 불순물 제거를 위해 월 1회 이상 산처리 방식으로 많은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팔려 어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광남 해양수산팀장은 “강진 김은 8시간이상 햇빛 노출을 받는 전통적인 지주식 방식으로 친환경 무염산 처리 양식법을 도입하기 유리한 조

건에 있다”며 “고품질 친환경 무염 김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완도해경, 휴가철맞아

해상사고 예방 총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가 해상사고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최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여객선 유·도선 위험을 대비해 안전요원 20여 명을 배치하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해양 긴급신고 전화 ‘122’ 포스터를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 등지에 게시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발생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와 이용객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해상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졌다.

완도해경은 앞으로 연안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명 구조장 도입과 실시간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수입 약용작물 ‘단삼’ 농가 새 소득원 된다

곡성농기센터 4년간 재배시험...가을부터 본격 수확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가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단삼(丹蔘) 재배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역 적응시험을 끝내고 현재 삼기면 2.5ha 면적에서 단삼을 재배중이며,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삼은 혈액순환 증진, 심혈관질환 치료, 혈압강하 등에 효능을 지닌 약용작물로 알려져면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재배면적이 적어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수입대상국인 중국의 불가상승과 한약재의 농약 잔류독성, 중

금속 등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단삼을 선호하고 있어, 재배면적 전체에 무농약 인증을 받을 계획에 전국 단삼은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노력, 행정적 지원, 지역적 특성이 어우러져 단삼재배가 가능했다”면서 “노력한 만큼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확시기까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지역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신안 흑산중, 부산서 흡스테이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전교생 33명의 섬마을 중학교가 도·농교류를 통해 영·호남 지역각정의 벽을 허물고 있다.

신안 흑산중학교(교장 김권술)는 최근 2박3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삼당중학교(교장 김경란)를 방문해 도·농교류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는 흑산중과 삼당중이 지난해 10월 도·농교류활동에 합의하고 지난날 11~12월 부산 삼당중 학생 33명이 흑산중을 찾은 것에 대한 답방행식으로 이뤄졌다. (보도 5월 15일자 보도)

흑산중 학생들은 첫날 ‘반갑다 친구야!’ 환영식을 시작으로 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에 참여했다.(사진) 특히 ‘친구의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에 다니는 삼당중 친구와 동행해 치열한 사교육 현장을 경험했다. /신안=조완민기자 wncho@



둘째날은 아쿠아리움과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조각전, 범어사, APEC 회담장었던 누리마루 등을 견학하고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영커·아나운서 등 역할을 부여하며 직접 뉴스를 제작해 보기도 했다.

김권술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호남과 영남의 문화화를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흑산중은 전교생이 33명(3학급)이며, 부산 삼당중은 1천256명(34학급)이다.

/신안=조완민기자 wncho@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잔여가	최저가	
전남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담양	담양읍	112/94	191.5㎡	1.91㎡	1.91㎡
전북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전북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전북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익산	익산읍	112/94	191.5㎡	1.91㎡	1.91㎡

• 서구청원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식·현정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명도(이사)